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6

42명이 펼치는 감동의 ‘말아톤’

광주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마라톤을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광주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황일봉) 장애인과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 42명이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사회적 편견극복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지난 2006년 대회 참가를 계기로 마라톤을 시작한 지적장애인들은 매년 대회에 출전하며 더 큰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적(知的)장애는 유전적 또는 후천적 질병이나 뇌의 장애로 인해 자능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해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애로를 겪는다.

광주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들은

장애인·가족·직원·자원봉사자

함께 뛰며 한계 도전·세상과 소통

22세 최경환씨 풀코스 에 도전

1~3급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 정서장애, 자폐와 중복장애를 앓고 있다. 장애극복을 위해서는 운동만큼 도움을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해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고, 매일 꾸준히 달린다 보니 체력단련은 물론 정신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됐다.

최근 폐막한 지구촌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잔치인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 지적장애인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세상과 소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를 연출했다.

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비롯해 지적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행사, 지적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령제정과 개정건의, 지적장애인 조기발견과 조기훈련·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자립지원센터,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에 알맞은 일거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직업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예비)사회적 기업인 ‘사랑으로 자라는 나무’ 운영을 통해 원예사업과 무공해 채소배배, 비누·리본공예와 같은 수익사업과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장애인과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들은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촉구한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출전 모습.

이번 대회에서 지적장애 2급인 최경환(22)씨는 풀코스 에 도전한다.

지난 2005년 영화 ‘말아톤’을 보고 난 후 마라톤 세계에 입문한 최씨의 삶은 놀랄 정도로 바뀌었다. 이 영화는 ‘달릴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5살 지능의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살 청년 주인공 초원이가 주인공으로 514만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최씨는 이 영화를 본후 마라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광주 달리기’ 동호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마라톤 대회 개최시기를 확인하고 참가신청을 스스로 함은 물론 대회를 앞두고는 목표의식을 갖고 꾸준한 훈련을 한다. ‘3·1절 마라톤 대회’의 경우 매년 풀코스 에 참여해 자신의 의지와 한계를 시험한다.

사회복지사 김영아 씨는 “지적장애인은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고, 적응능력이 부족하지만 최경환씨는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식사조절을 하고,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을거라 생각하는 준비과정을 스스로 하고자 노력한다”며 “마라톤대회가 끝나 후 매우 행복해 한다. 마라톤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황일봉 협회장은 “지적장애인들이 좋고 싫음의 감정을 갖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욕구와 의지도 있으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도 느낀다”면서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적장애인을 역시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범사회적인 작은 생각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대만 도착했어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이용규와 윤석민 등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2일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엔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대표팀은 대만 자이언츠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조직력과 실전 감각을 키우고 최종 엔트리 28명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민 “어떤 팀 만나도 이길 자신”

WBC 대표팀 대만 전훈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야구대표팀이 12일 전지훈련지인 대만으로 떠났다.

감정색 공식 단복을 입은 대표선수 27명과 코치진 6명은 이날 오후 대만 자이언츠 도착, 13일부터 본격적인 답답집에 들어간다.

소속팀 스프링캠프에서 단내는 훈련을 소화하고 11일 소집된 대표팀은 WBC 결승전이 열리는 3월20일까지 40일 가까운 기간 조국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쏟아부을 예정이다.

특히 역대 최악체라는 우려를 뒤집고 앞선 1·2회 대회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선수들의 각오가 대단하다.

1회 대회 이후 7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투수 최고참 서재용(36·KIA)은 “마지막 대표팀이라 생각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4강 이상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선발투수 외에 중간투수들은 언제나 경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WBC에서는 투구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공 한 개씩 집중해서 던진다면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기대했다.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 윤석민(27·KIA)도 어떤 팀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석민은 “능력을 100% 발휘해서 던진다면 (나에 대한) 분석이 돼 있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 컨디션을 잘 관리해 게임에 임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구는 골짜기 1등을 이길 수 있는 변수가 많은 스포츠라서 매 경기가 중요하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면 4강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며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에서 활약하는 이대호(31·오릭스)는 “뒤에서 전력분석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일본 야구에서 경험한 느낌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13일 대만 자이언츠 도류구장에서 첫 훈련을 시작한다. 류종일 감독은 28명의 대표팀 후보를 확정해 20일 최종 엔트리를 제출한다.

대표팀은 신생구단인 NC 다이노스와 연습경기를 거쳐 3월2일 네덜란드와 WBC 본선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700만 달러 사나이’

추신수 신시내티와 연봉 계약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연봉조정 청문회에 가기 전에 구단과 연봉에 합의, 또 ‘대박 계약’에 성공했다. AP통신은 12일(한국 시간) 추신수가 신시내티와 1년간 737만5000달러(약80억7190만원)의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연봉인 490만 달러보다 무려 247만5000 달러(약 50.5%) 오른 금액이다. 원래 신시내티는 675만 달러를 제시했고 추신수는 80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절충선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추신수는 김병현(657만 달러)을 제치고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댄 한국 선수 중 박찬호(155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광주시야구협회 ‘야구기록강습회’

3월 9·10일 조선이공대서 열려

광주일보·KIA 타이거즈 등 후원

‘기록의 스포츠’ 야구의 매력을 더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2기 야구기록강습회가 내달 9·10일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열린다. 지난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으며 올해로 두 번째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야구협회(GBA)와 한국야구기록연구회(SKBR)가 주최하며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 농협중앙회 광주지부, 조선이공대학교, 복지법

인 효자병원이 후원한다.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광주시야구협회 나훈 회장이 광주야구 발전사에 대해 설명하고 SKBR 관계자가 야구의 역사와 규칙, 규약 및 기록법 등에 대한 강의를 맡는다.

TV 중계를 통해 직접 기록을 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기록 강습회의 일정 확인과 접수는 홈페이지(cafe.daum.net/yonara)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yonara77@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대학생 객원 마케터 모집

KIA 타이거즈가 제9기 대학생 객원 마케터를 모집한다. KIA 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호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로 구단 홈페이지(www.tigers.c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kiatigers13@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객원 마케터는 홈경기 현장실습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실무를 익히고, 구단 및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제안 등 제3차 과제물을 제출하게 된다.

또 프로야구가 열리는 전체 구장을 출입할 수 있는 AD카드 및 구단 모자와 유니폼을 받는다. KBO(한국 야구위원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출발일 당일(찍수날 출발)

여행비 주 중 88,000원 주말 9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쾌속선 흑산도 중식 제공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여행비 주 중 15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쾌속선/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